

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		수도권매립지 종료	
보 도 자 료		환경특활시 인천	
배포일자		2022년 2월 25일(금) 총 3매	
담당 부서	납세협력 담당관	담당자	• 통합징수팀장 김정구 ☎440-5771 • 담당자 이종성 ☎440-5775 진동호 ☎440-5773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끝까지 추적한다!**

**인천시, 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의지 밝혀**

-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946명 1차 선정 -

-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 독려 후 11월 최종 명단 공개-

- 오메가 추적 징수반 가동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 집중 계획 -

인천시가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.

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·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액·상습 체납자 1,98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946명을 공개 대상자 선정했다. 청산종결, 파산, 사망, 경·공매 진행, 거주불명, 국외이주 등 공개 실익이 없는 1,041명은 공개 제외키로 결정했다.

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

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체납자 명단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.

최종 체납자 명단은 11월 16일 시, 군·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, 위택스(WeTax)에 공개 할 예정이다.

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,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.

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“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, 고액체납자 전담을 위해 2021년 신설한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가동해 가택수색, 동산압류,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” 이라면서 “그 외에도 은닉재산 신고포상 제도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SNS에 적극 홍보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비양심 체납자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전 방위적 체납징수 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

[오메가 추적징수반 활동 영상 링크 : <https://youtu.be/1nEodE2xXTg>]

<붙임>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

## 참 고

##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

### □ 공개기준(지방세징수법 제13조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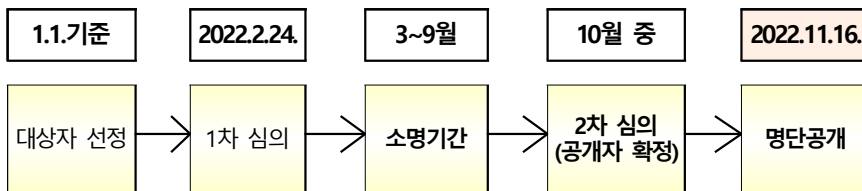
#### ○ 공개 대상

-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, 상호(법인명), 나이, 직업, 주소(영업소), 체납요지 등

#### ○ 공개제외 대상

- 체납액의 50% 이상 납부,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이 이의신청,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
-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
-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# □ 명단공개 일정 및 기한



- 공개 제외 대상자에 해당(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, 사망 등)하는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